

'3퇴'와 평안

제 291기 2017년 6월 21일

2017년 6월 17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7,587만 명

미국 뉴욕 파룬궁 수련생이 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명혜망] 2017년 6월 11일, 뉴욕 파룬궁(파룬파파) 수련생들이 브루클린 제 3 차이나타운에서 현지인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했다. 이들은 파룬궁의 진상을 전파하고 중국인에게 '3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평안을 보전하기를 권했다.

이날 이른 아침, 파룬궁 수련생들은 브루클린 대로의 차이나타운 구간에 도착했고, 어떤 이는 '파룬파파 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真善忍)', '공산당 없는 새로운 중국을 맞이하자', '파룬궁 박해 중지', '3퇴는 복이다' 등의 밝고 눈길을 끄는 현수막을 들었고, 어떤 이는 행인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소개하는 자료를 나눠주며 '3퇴'를 권했다.

한 사람은 파룬궁의 진상을 알고 난 후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을 비난하는 서명지에 서명을 했다. 한 서양인 여성이 수련생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의 전단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한 서양인 남성이 말했다. "저는 파룬궁을 지지합니다." 중국인 노부부는 진상 자료를 받았는데, 수련생이 여성에게 공청단에 가입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수련생은 그녀에게 가명으로 탈퇴할 것을 권했다. 그녀는 시원스럽게 동의하면서 말했다. "모두 몇 십 년 전의 일이에요. 하라고 해서 했죠."

다른 남성 한 명은 수련생에게 자신은 중공이 사악하다는 것을 안다며, 소학교에 다닐 때 할 수 없이 소선대에 가입했지만, 지금은 탈퇴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위서기가 오른손을 들고 탈당을 선언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국민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당위서기가 오른손을 들고 탈당을 선언하다

[쓰촨 투고] 5월 하순의 어느 일요일 오전, 쓰촨성 모 시의 한 현직 국당위서기가 파룬궁 제자인 나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닫더니 엄숙하고 진심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3퇴'를 돕고 있지 않나요? 나를 도와 당, 단, 대에서 탈퇴시켜 주세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또 말했다. "공산당은 정말 나쁘고, 확실히 나쁘고, 나쁘기 짝이 없어요!" 그는 선서를 하듯이 오른손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전에 가입했던 당, 단, 대 조직에서 스스로 탈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몰라서 공산당에 속았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탈퇴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에게 준 파룬궁 진상 자료에도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이 들어 있었지만, 그는 시종 망설였다. 나는 그의 얼굴이 진심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말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했으니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가 여전히 현직에 있으므로 나는 가명을 지어 '3퇴'를 하게 했고, 그는 가명을 마음에 들어 했다. 나는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좀 더 알려주었고, 마음속으로 늘 "파룬파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

이 아홉 글자의 상서로운 말을 외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진정하게 당신을 구하시는 분은 우리 사부님입니다." 그는 곧바로 말했다. "파룬궁 사부님 고맙습니다. 리대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는 천근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활기차게 웃었다!

전직 610 직원이 탈당하다

[대륙 투고] 어느 날 나는 한 파룬궁 수련생이 한 남성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것을 보았다. 그 남성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자신이 원래 모 단위의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의 불법 기관)' 소속이었다며, 자신은 파룬궁 수련생이 모두 좋은 사람임을 알고 늘 남몰래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노인과 노부인은 모두 건강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나쁜 사람을 잡으려 애를 쓰지. 그들이 뭘 하는지 봤고, 우리는 모른 채하면서 지나왔어."

파룬궁 수련생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진(真), 선(善), 인(忍)'에 따라 수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건 사람을 구하려는 겁니다. 장쩌민 패거리가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천안문 분신자살 가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파룬궁을 증오하도록 만든 겁니다. 저우융캉, 보시라이, 리둥성 등은 수불하는 사람

을 박해한 사람인데, 이미 응보를 받았습시다. 중공은 저지른 나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당에게는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우리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체포합니다. 우리는 단지 파룬궁 진상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노형, 마음이 선량하면 마땅히 복을 받습니다. 빨리 가입했던 당, 단, 대에서 마음속으로 탈퇴하고, '파룬파파 하오, 찌싼런 하오'를 기억하고, 진, 선, 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거푸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를 도와 탈퇴시켜 주세요."

그때 내가 주머니에서 명혜망기간(期刊)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노형, 돌아가시거든 이 명혜기간을 잘 보세요. 진상을 알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또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 명혜기간은 우리가 자신들의 봉급으로 만든 겁니다. 다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 주세요. 예전에 함께 일한 동료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들도 진상을 알게 하면, 알게 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떠나갔다.

해외 메일주소 freeget.ip@gmail.com (제목을 비우지 말 것)로 메일을 보내면 10분 이내에 IP주소 몇 개를 얻을 수 있다. 봉쇄사이트를 돌파하고 망후이왕 www.minghui.org에 방문하면 더욱 많은 진상을 알 수 있다. 동타이왕 홈페이지에서 자유문, 무계 등 여러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나중에 올라가기가 더욱 편리하다.

중공은 진정한 사교다

[명혜망] 중공 당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사교의 10대 특징’을 공표하자 네티즌이 평론을 발표했다. “우리는 마침내 누가 최대의 사교인지 알았다!” 또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원래 우리가 줄곧 사교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구나!” 국민이 정확한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 10대 특징에 의거해 “진정한 사교”를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1. 교리 날조, 최후의 날 선전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교리로 만들고, 근 100년 동안 ‘말일론(자본주의 최후의 날)’을 떠벌리면서 사회주의 환상으로 사람을 유혹해 입교하게 했으며, 스스로를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치켜세웠다.

2. 신격화한 교주, 유일신 숭배

마르크스에서 장쩌민까지 공산당 지도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한다. 마오쩌둥은 ‘붉은 태양’, ‘위대한 구원자’가 됐고, 그의 말은 ‘한 마디가 만 마디’와 같았다. ‘일반 당원’이었던 덩샤오핑은 태상황 식으로 중국 정치를 지배했다.

3. 입교 유혹, 정신 통제

중국인은 어려서부터 강제로 소년대에 가입하고 이후에 입당, 입당하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중공의 혈기 앞에서 ‘공산당을 위해 종신 분투 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입당은 몸을 파는 것처럼 정신에서 육체까지 통제되며, 만약 탈당을 하려 하면 곧 반역자가 된다. 심지어 문화혁명 시대에는 당이 죽으라고 하면 살아서는 안 되었고, 당이 살라고 하면 죽어서는 안 되었다. 만약 자살을 하면 ‘인민을 배척한’ 것이므로 가족을 연루시켜 대가를 치르게 했다.

4. 치밀한 조직, 독재 강권

공산당원이 되려면 추천인 두 명이 있어야 하며, 영원히 당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당원에게는 당비 납부, 조직생활, 집단 정치학습이 요구된다. 당 조직은 각급 권력기관에 퍼져있고, 모든 향·진·촌과 도시의 거리 마다 당의 기층 조직이 존재한다. 당은 당원과 당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당원이 아닌 군중도 똑같이 그의 통제 범위에 포함된다.

5. 신도 착취, 헌신 장려

당의 신도 수천만, 매년 당비 수억 위안, 당위원회(실제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고 신도를 기만하는 기생충)에도 돈을 내야 한다. ‘가족을 바치고 자신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자손을 바쳐’ 다만 당 관리 가족을 부양할 뿐이다.

6. 금전 수탈, 낭비와 음탕함

국가기관 위에 더 큰 권력을 가진 당 조직(각급 당위원회와 지부)을 붙여 각급 정부로부터 경비를 전용하며, 은행을 이용해 백성의 피를 빨고, 주식시장을 이용해 투자자의 즙을 짜고, 기업으로부터 찬조, 잡비, 잡세를 수탈한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 이후 중공 고관이 외국으로 빼돌린 자금은 8천억 위안에 달한다. 중공 두목 장



쩌민은 “조용히 큰돈을 벌라”며 공개적으로 떠들었는데, 그의 가족의 부정부패는 중국 제일탐으로 회자되며, 그의 정부들은 모두 안하무인이다.

7. 내부 권력투쟁, 이색분자 박해

역대로 정치운동을 벌이며 군중을 선동해 서로 싸우게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중공의 파벌이 권력 찬탈을 위해 발동한 것이었다.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당내 숙청’, ‘정풍’, ‘반역자’ 체포, ‘AB단’ 살해, ‘당의 정돈’ 등 주기적으로 폭력공포를 이용해 상대를 영원히 당과 일치되게 했다.

8. 은밀한 행동, 진상 격리

당내 정책 결정을 검은 상자 속에서 처리하고, 당내 투쟁은 절대 비밀로 하며, 당의 공문은 기밀문건이다. 나쁜 짓이 폭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걸핏하면 반대론자를 ‘국가기밀 누설’죄로 다스린다. 나아가 거액의 자금으로 황금 방패 공정을 세우고, 여론을 조종하고, 네트워크를 차단해 사실과 진상을 알고 싶으면 ‘벽을 넘어야’ 한다.

9. 사회를 해치고, 인권을 침해

덩샤오핑은 “20만을 죽여 20년의 안정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장쩌민은 “육체적으로 소멸하고, 명예상으로 매장하고, 경제적으로 차단하라”고 말했다. 중공은 역대 정치운동으로 중국인 8천만 명을 살해했다. 근대의 6·4 민중 학살로부터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해 돈벌이로 삼기까지! 사스를 숨긴 것에서 쓰촨 대지진을 숨긴 것까지, 모든 중국인은 수시로 그의 폭력과 거짓말의 희생양이 되었다.

10. 범죄 은폐, 점잔 빼기

중공은 자신이 일관되게 정확하다며, ‘10년 동안의 큰 재난인 문화혁명’도 단지 ‘실수’라고 주장한다. 습관적으로 화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발전의 진리’를 들먹이며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철저히 실패했음을 덮어 감춘다. 대내적으로는 잔혹하게 탄압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를 팔고 영토를 할양하며, 장쩌민은 노예의 역할을 유감없이 연기했다.

‘공산당 선언’ 첫 번째 문장은 이렇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중공은 오늘 ‘천당으로 가는 길을 모두 막고, 지옥문을 열어놓은’ 이 한 점을 증명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표준에 의거해 ‘사교의 10대 특징’을 충분히 갖춘 중공이야말로 인간세상 최대의 사교다. 한 사람은 위의 분석을 모두 읽고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모든 사교를 합해도 그만큼 사되지는 않다! 물어보겠는데, 어느 사교가 수천만 중국 동포를 잔인하게 해칠 수 있겠는가?” 또 한 사람은 건의를 했다. “현재 중국인 2억 7천만 명이 중공의 당, 단, 대를 탈퇴했다. 여러분도 빨리 실명이나 가명으로 중공이라는 이 사교 조직을 탈퇴해서 최후에 피의 빛이 하늘까지 쌓인 이 사교를 대신해 순장품이 되는 것을 피하기 바란다!”

암에 걸렸던 그녀가 완쾌되다

[후난 투고] 후난성 링수이장시 상업국 퇴직자 판스어(여성, 62세)가 2003년 폐암에 걸렸다. 2004년, 파룬궁(파룬파파)를 수련하는 동료 한 명이 판스어에게 파룬궁은 불법(佛法)이며,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을 탈퇴(3퇴)해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하고, 성심으로 ‘파룬파파 하오’를 외우라고 가르쳐 주었다.

머지않아 판스어는 폐암이 나아졌다. 그녀가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어떠한 암세포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판스어는 아주 건강하다. 한편 그와 똑같이 폐암에 걸려 같은 시기에 입원 치료를 받은 우(武) 모 씨는 창사사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안되어 사망했다.